

# 19세기 후반 典醫監 醫學生徒에 대한 고찰 - 『前衛生徒案』을 중심으로 -

박훈평

화순마루요양병원 한방 6과

## A Research on the Jeonuigam medical cadet in the late 19th century

Hun-pyeng Park

*Korean medicine six department, Hwasun maru convalescent hospital*

Jeonuigam(典醫監) is one of the Big Three of medical government office through the Joseon dynasty era. But Jeonuigam literature is extremely rare. This paper is to analyze 362 cadets of 『Jeonham-saengdoan(前衛生徒案)』 by writer of Jeonuigam origin. Jeonuigam filled cadet on a three-year cycle because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medical officials is conducted on same cycle. Most cadets came from a few meritorious family of medical career officials. Ratio of ten major family stand at 34.91 percent. 373 of the 392 cadets are confirmed as family member of medical bureaucrat. They have a very closed society. Wancheon(完薦) and cadet system strengthen the monopoly power of a few family. The analysis of study confirmed that in the 19th century Joseon(朝鮮) dynasty had monopolized the medical technicians.

Key words : Jeonhamsaengdoan, Medical cadet, Jeonuigam, Wancheon, Uigwa, Korean medicine, Medical history

### I. 서론

조선 의료관청은 세종 25년(1443년)<sup>1)</sup> 이후 고종 19년(1882년)<sup>2)</sup>에 이르기까지 내의원, 전의감, 혜민서의 삼의사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중 전의감은 궁중에서 쓰는 의약의 공급과 의학교육, 의관 취재, 의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그동안 전의감 관한 사료가 일부 고문서 외에는 학계에 보고되지 않아 그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였다. 졸저를 통하여 고종조 전의감 관안인 『典醫監官案帖』의 존재를 알렸고<sup>3)</sup>, 이어 본 논고를 통해 『前衛生徒案』을 학계에 소개하고자 한다.

현존하는 『전함생도안』(이후 『생도안』으로 약칭)은 연세

대학교 국학자료실에 소장중인 필사본으로 19세기 후반 전의감 의학생도 명단이다.<sup>4)</sup> 완천(完薦)을 통해 생도를 선출하고, 이후 잡과에 응시하는 것은 다른 기술직 관청인 사역원(譯科), 관상감(陰陽科)에도 해당하는데, 두 관청은 완천지(『兩廳完薦記』, 『本廳完薦記』)와 관청지(『통문관지』, 『서운관지』)가 전하고 전의감은 생도명단이 현전한다.

논자는 김두현과 김현목이 기존에 행한 관상감, 사역원 생도 연구의 성과와 『생도안』 분석을 이용하여, 전의감 의학생도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 연도별 입속인수(入屬人數)와 입속시기, 생도의 이후출사, 입속연령, 입속 후 의과과과까지의 기간, 등과연령, 입속인의 가계를 조사했다. 조사방법은 『조선의인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을 검색하여 수록인물 392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별도의 인용문헌이 있을 경우 각주에 기록했다.

접수 ▶ 2013년 04월 07일 수정 ▶ 2013년 05월 27일 채택 ▶ 2013년 05월 28일 교신저자 ▶ 박훈평,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곡리 산 37 화순마루요양병원  
Tel : 061-373-9100 E-mail : lillipute@hanmail.net

1) 1443년 6월 15일 세종실록 기사 참조. 내의원 설치.

2) 1882년 12월 29일 고종실록 기사 참조. 혜민원 혁파.

3) 박훈평, 『조선의인지』. 파주:한국학술정보. 2012:p.575. 참고문헌 참조. 이 자료는 2009년 8월 대구에서 경매되어 현재 소장처 미상이다.

4) 논자가 소장처를 방문하여 MF자료를 열람 조사했다. 청구기호. MF 100-241.

## II. 본론

### 1. 서지적 사항

#### 1) 구성 및 형태사항

1권 1책 필사본. 본서의 표제는 “前衛生徒案”이고 내용은 별도의 서문, 목차, 간기 없이 한 면 당 8명 내외(7~9명, 대개 8명)로 입속인(入屬人)의 성명, 부친명, 부친 관직, 입속시기, 본관이 기록되어 25장 49면에 걸쳐 총원 392명<sup>5)</sup>이 수록되었다. 초명이나 개명은 성명 옆에 細字로 병기하고, 내이나 전의감정, 침정인 친척(숙부, 형제 등)이 있는 경우, 부친명 아래에 細字로 기록했다.

1883년 9월부터 1884년 7월 사이의 입속자인 이준욱(李準旭), 방한중(方漢宗) 등 다섯은 특이하게 성명 상단에 “惠” 기록이 있다. 『의과방목』 등의 자료에서는 이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민서 의원임을 지칭하지만, 『생도안』에서는 해민서 생도 또는 해민서 완천자 출신에 대한 기록으로 추정된다. 그 근거로 방한중은 생년이 1871년이므로 입속 당시(1883년) 연령이 어려서, 전직 해민서의원이었을 가능성은 낮다. 이 시기에만 해민서에서 전의감으로 옮긴 생도가 있는 까닭은 1882년 12월 29일에 해민서가 혁파되어 그 관속이 전의감으로 이속되었기 때문이다.<sup>6)</sup> 이들이 해민서 생도였는지 단지 완천만 통과한 이였는지는 사료미비로 알 수 없다.

기타 서지사항 無界, 無魚尾, 長 35cm<sup>7)</sup>

#### 2) 필사자와 필사시기

표제 좌측에 “己巳年 典醫監”으로만 쓰여 있어, 필사자를 고증할 수 없으나, 책의 내용으로 보아 전의감에 속한 인물로 추정된다. “己巳年”은 내용에 수록된 첫 인물인 정수개(鄭壽凱)의 입속시기인 “己巳三月”이므로, 『생도안』은 “甲申

十月”까지 15년에 걸친 기록이다. 정수개의 부친은 “監正 鄭秉灝”로 기록되었는데, 전의감 문헌에서 “監正”이란 전의감정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 정병호는 『의과방목』을 통해 1827년에 태어나 1858년 식년시 의과에 급제한 이<sup>8)</sup>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기사년은 1869년(고종3년), 갑신년은 1884년(고종21년)이다. 1894년에 가서야 전의감 관제 개혁<sup>9)</sup>이 이루어지므로 전의감 생도제도 또한 그 시기까지는 존속되었을 것이나 본 자료는 1884년 10월까지의 입속자 명단까지만 담고 있다.

### 2. 전의감 의학생도 제도 고찰

#### 1) 정원과 충원시기

조선 전기에 의학생도는 총 80인으로 전의감 50인, 해민서 30인이었고, 이후 영조 조에 와서 총 118인, 전의감 56인, 해민서 62인으로 증원되었고 이 정원은 이후 고종초기(1865년)까지 유지되었다.<sup>10)</sup> 1882년 12월에 해민서와 전의감의 통합 시에 생도 정원의 일부 변동은 추정된다.

『생도안』의 연도별 입속자 수를 조사하면 한 해에 125명(1878년)에 달하는 등 정원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는 의과 등과자 정원의 문란과도 관련 있다. 본래 식년시와 증광시의 합격자 정원은 9인이고 대증광시의 정원은 13인<sup>11)</sup>이지만, 1874년 증광시 이후의 12번의 의과는 한 번도 정원이 지켜지지 않고 더 많은 수의 등과자를 배출한다.<sup>12)</sup>

연도별 생도 입속자 수를 살펴보면 3년 주기로 다른 해에 비해 많은 생도를 뽑는 주기가 있는데 이는 식년시 의과 실시해의 전해에 해당한다. 증광시 의과는 국가적인 경사에 갑자기 시행되므로 이러한 주기는 따로 없다. 그리고 의과 실시 해에는 가장 적은 수의 입속인수를 보여준다. 만약 의학생도가 일정 정원을 유지했다면 오히려 의과 실시 해에 입속인 수가 가장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기는 필요에 의해 생도가 충원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입속월일을 살펴보면 특정 시기가 없다. 1878년에 이루어진 충원은

5) 동일인 수록이 2명 있어 실제인원은 390명이다. 연구 통계에 있어서는 동일인을 별도로 계산했다. 이계필(李濟弼, 1878.3. 1879.10. 입속). 김동석(金東哲, 1878.5. 1878.8. 입속)

6) 1882년 12월 29일 고종실록 기사 참조

7)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의 서지사항에는 책제를 “前御生徒案”, 장수를 24장으로 기록했는데 오류이다.

8) 박훈평, op. cit. p.424.

9) 1894년 7월 22일 고종실록 기사 참조

10) 『대전회통·禮典』生徒 참조. 『속대전』(1746년. 영조22년)에 이르러 생도 정원 증가가 이루어진다.

11) 『대전회통·예전』諸科 참조.

12)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의 고종조의 의과목록 참조

다른 식년시 의과 실시 전 해보다 대규모이지만 사료의 미비로 그 이유는 조사하지 못했다.

전의감과 헤민서의 통합 시에 모든 헤민서 생도들이 전의감 생도로 바로 이속되지 않았음은 1882년 12월 이후의 입속인수(1883년)가 헤민서생도 전체 정원에도 미달한 점에서 확인된다. 헤민서출신은 이준옥 등 5인의 예처럼 전의감 완전과정을 다시 거쳐야 했다.

전의감생도의 연도별 입속인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전의감 생도의 연도별 입속인 수

| 연도   | 입속인수 | 의과실시    |
|------|------|---------|
| 1869 | 31명  |         |
| 1870 | 5명   | 식년시     |
| 1871 | 7명   |         |
| 1872 | 22명  |         |
| 1873 | 11명  | 식년시     |
| 1874 | 6명   | 증광시     |
| 1875 | 39명  |         |
| 1876 | 9명   | 식년시     |
| 1877 | 3명   |         |
| 1878 | 125명 |         |
| 1879 | 8명   | 식년시     |
| 1880 | 6명   | 증광시     |
| 1881 | 65명  |         |
| 1882 | 7명   | 식년시 증광시 |
| 1883 | 12명  |         |
| 1884 | 29명  |         |
| 1885 | 미기록  | 식년시 증광시 |

## 2) 전의감 생도의 출사

전의감생도는 의학교육을 받아 권지(權知)의 자격으로서 前脚官(전함관)과 더불어 취재에 응시하였고<sup>13)</sup>, 과거인 의과를 보았으므로 다수는 의관이 되지만, 일부는 다른 경로로 출사하게 된다. 주학에 입격하는 이들 중 다수가 이후 잡과에 등과하거나 다른 취재에 입격하여 활동하게 되므로, 壽學(주학) 입격인은 출사 비율 분석에서 제외했다.

의관은 취재로만 의관이 된 17명과 의과 등과자 87명을 합하여 총 104명으로 26.53%의 비율이다.

역관은 역과 등과자 29명, 7.39%, 음양관은 음양과 등과자 6명, 1.53%의 비율이다. 기타는 총 7명으로 1.78%의 비율로서 문과, 진사, 기타 행정 관료를 포함했다. 기타 출사자는 다음과 같다. 이제선(李濟宣, 1891년 庭試 丙科). 이용림(李容琳, 1873년 식년시 진사). 이견호(李建鎬, 1874년 증광시 생원). 농상공부 국장 정대유(丁大有). 주사 이찬호(李纘鎬).<sup>14)</sup> 군수 이해덕(李海德), 주사 이능상(李能相).<sup>15)</sup>

## 3) 전의감생도 입속연령

392명 중에 생년이 파악되는 이는 160명이다.<sup>16)</sup> 이들을 대상으로 입속연령을 분석하면 6~10세는 28명, 11~15세는 45명, 16~20세는 43명, 21~25살은 27명, 26세 이상은 17명으로 평균 15세 전후가 된다. 이는 다른 잡과 중인 생도와 비슷한 연령이다. 다만 완전이 생도입속 이전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의학생도의 평균 연령이 역학이나 운학생도의 평균연령보다 다소 낮으나 그 차는 미비하다.<sup>17)</sup> 최연소자는 경필영(慶必永, 1869년 12월생. 1875년 5월 입속)이고 최고령자는 정지수(鄭智秀, 1813년생. 1872년 3월 입속)이다. 정지수의 경우 생도가 되기 전에 헤민서의원(主簿)을 지내고, 생도 이후로 전의감의원(治腫聽 鍼醫)을 역임한다.<sup>18)</sup> 정지수가 늦은 나이에 생도로 입속한 것은 전의감 의원이 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는 고운필(高運弼, 1875년 8월 입속)을 들 수 있는데, 그의 입속 당시 벼슬은 헤민서참봉(『양청완천기』 참조)이다.<sup>19)</sup> 입속 당시의 벼슬인지 불분명한 헤민서참봉 현령운(玄寧運, 1878년 3월 입속)<sup>20)</sup>과 고운필을 제외하면 입속이후 취재로 의관이 된 이들(15명)은 모두 전의감의원이 된다. 이러한 사례와 전술했던 헤민서 완전 출신들이 전의감 생도로 곧바로 되지 못한 사례는, 헤민서와 전의감 두 관청이 같은 국가 의료관청이지만 지위가 달라 둘 사이에 인적교류는 쉽

13) 1454년 12월 20일 단종실록 기사 참조

14) 한국사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丁과 李의 약력은 대한 제국 관원 이력서 참조

15) 이해덕과 이능상은 정음이씨 23세와 24세로 출사기록은 족보를 참조했다.

16) 『조선의인지』와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을 통하여 153명의 생년을 조사했다. 방필영(운양방씨 판서공파), 이현상(정음이씨), 이인상(정음이씨), 조항림(평양조씨 침주공파), 이원빈(=이재혁, 전주이씨완창대군파), 이수홍(=이득기, 상동), 이현수(상동)는 해당 족보를 참조했다. 참조 족보는 논고의 참고문헌에 수록했다.

17) 김두현, 「19세기 운학완천합격자와 그들의 가계」, 전북사학. 2008;33:p.156.

김현목, 「조선 후기 의학생도의 피천과 역학 진출」, 인하사학. 1994;2:p.97.

18) 박훈평, op. cit. p.25, p.444.

19) 박훈평, op. cit. p.29.

20) 박훈평, op. cit. p.551.

게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헤민서 혁파 시 헤민서의 원이 전의감으로 이속된 것은 왕명에 의한 것으로 예외적인 경우이다.

### 3. 전의감생도와 의과

#### 1) 입속 후 의과 등과까지 걸리는 기간

『생도안』 수록 392명 중 의과 등과자는 87명이다.

표 2. 입속 후 등과까지 걸리는 기간

| 기간     | 총원  | 비율     |
|--------|-----|--------|
| 당해     | 3명  | 3.44%  |
| 1년     | 20명 | 22.98% |
| 2년     | 9명  | 10.34% |
| 3년     | 2명  | 2.29%  |
| 4년     | 15명 | 17.24% |
| 5년     | 5명  | 5.74%  |
| 6년     | 1명  | 1.14%  |
| 7년     | 15명 | 17.24% |
| 8년     | 1명  | 1.14%  |
| 9년     | 2명  | 2.29%  |
| 10년    | 8명  | 9.19%  |
| 11년 이후 | 6명  | 6.89%  |

입속으로부터 등과까지 걸리는 기간은 1년, 4년, 7년, 2년, 10년의 순위인데, 이는 식년시 의과 실시 한 해 전에 대규모의 생도충원이 이루어진 점과 3년마다 식년시 의과가 실시된 주기에서 비롯된다. 기간이 2년인 비율이 10.34%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9명 중 7명이 증광시 의과 출신이어서 예외적인 경우이다. 10년 이상 걸리는 등과자 14명 중에 조석범(趙錫範, 16세), 조재근(趙宰根, 14세)을 제외하고는 입속연령이 모두 10세 이하라는 사실은 등과에 있어 일정 기간 이상의 교습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입속연령이 6~10세인 28명 중에서 등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인 수가 11명에 달한다. 입속부터 등과까지 가장 오랜 기간은 변지원(卞志遠, 1863년 입속, 1879년 식년시 등과)의 16년이다. 입속 당해에 등과한 이는 최영칠(崔永七, 1870년 식년시), 정중하(鄭鍾夏, 1874년 증광시), 정성규(鄭錫圭, 1880년 증광시) 3명이다.

#### 2) 의과합격자 중 생도비율

『생도안』은 1869년 3월부터 1884년 10월까지의 명부이다. 이 사이에 실시된 의과는 식년시 6회, 증광시 4회, 총 10회로 181명의 등과자를 배출했다.<sup>21)</sup>

이 중 의학생도 출신으로 확인되는 이는 총 83명으로 『생도안』 수록인물 79명과 미수록자 4명이다. 미수록자는 『의과선생안』에 “色掌”으로 기록된 남종학(南種學, 1870년 식년시)과 정즙(鄭楫, 同科), 『의과 등과 교지』에 “醫學生徒”로 기록된 정관희(鄭觀喜, 1880년 증광시), 홍영석(洪榮錫, 동과)<sup>22)</sup>이다. 이들은 『생도안』 기록 이전의 입속자로 보인다. 83명은 181명의 45.85%에 달하는 비율이다.

그런데 『생도안』 이전에도 의학생도 입속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앞서 등과까지 대다수가 10년 이하의 기간이 소요됨을 확인했다. 『생도안』의 초기기록인 1869년에 10년을 더한 1879년 이후부터 1885년까지의 등과자는 식년시 4회, 증광시 2회, 총 6회로 134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의학생도 출신자는 72명, 53.73%의 비율이다. 물론 이중에 11년 이상의 기간이후 등과한 자가 있다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참고로 10회의 의과 중 생도출신 장원자로 확인된 이는 5명에 달한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피희철(皮熙哲, 1874년 증광시), 강달수(姜達秀, 1876년 식년시), 이준정(李準正, 1880년 증광시), 이주모(李周模, 1882년 식년시), 한승현(韓升鉉, 1885년 증광시).

### 4. 전의감 생도의 가계 고찰

#### 1) 완천과 입속 과정에서 가문의 영향

전의감 생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완천을 거쳐 입속하여야 했다. 전의감 완천과 입속에 대해서는 문헌이 전하지 않지만, 『통문관지』와 『서운관지』를 통해서 당시 기술관 관청이 생도를 천거하는 과정이 유사했음이 확인된다. 그 과정을 간단히 말하자면 국왕이 관료를 임명함에 대간의 심사를 거치는 서경(暑經)의 예에 따라 완천식(完薦試)도 피천자가 친가와 외가의 四祖(결혼한 경우는 처가 포함)에 관한 문서를 녹관청(祿官廳)에 제공하고 회의를 거쳐 가부

21)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의 고종조 의과목록 참조

22) 박훈평, op. cit. p.136, p.443, p.415.

를 결정하였다. 완전에 합격한 이후에는 시험을 거쳐 그 성적의 상하로 생도에 결원이 생기는 대로 충당하였다.<sup>23)</sup> 실제 완전 과정에서 가문이 미치는 영향은 김두헌이 장서각 소장의 『완전절목』을 인용하여 밝혔다.<sup>24)</sup> 『완전절목』이 관상감 완전 자료이나 전의감 또한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증인가술직 가계가 아닌 피천자는 완전의 대상 조차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녹관청은 해당 관청 녹관들의 회합이었으므로, 피천자가 녹관들의 친인척인 경우 심사 통과는 용이 했다.

완전 이후 생도가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1882년 12월 혜민서와 전의감의 통합으로 이속된 이들의 사례에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들 모두 이속될 당시 이미 완전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졌다. 이준옥(1883년 9월 입속), 방한중(1883년 9월 입속), 정대유(1884년 7월 입속)에서 보듯 정해진 기간은 없고 때로는 일 년 이상 기다려야 했다.

2) 『생도안』 수록 인물 가계 고찰<sup>25)</sup>

논자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3명 이상의 의관(의학 생도 포함)을 배출한 가계는 202개 가계이다.<sup>26)</sup> 『생도안』의 수록인물에서는 그 중 90개 가계가 발견되는데 392명 중 373명이 이에 해당함으로써 95.15%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주요의관 가계가 아닌 입속인은 김승현(金承鉉, 개성인, 德富계<sup>27)</sup> 10세) 한 명이고, 가계를 조사하지 못한 입속인은 다음과 같다. 장덕순(張德純, 대원인), 한국진(韓國鎭, 청주인), 이규진(李圭眞, 전주인), 이병혁(李炳赫, 경주인), 김기락(金基洛, 광산인), 김만선(金晩善, 본관미상),

박효연(朴孝然, 밀양인), 김기명(金基明, 경주인), 이정상(李鼎相, 본관미상), 김계흥(金啓興, 본관미상), 박건조(朴健朝, 밀양인), 안재륜(安載崙, 순흥인), 안재용(安載容, 순흥인), 안재준(安載準, 순흥인), 장한명(張漢明, 대원인), 박정룡(朴慶龍, 본관미상), 최종(崔鍾, 경주인), 정대유(丁大有, 나주인).

조선시대 주요 의관가계와 『생도안』의 주요 가계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19세기 후반에 약화된 가문은 김해김씨 수량계, 청양김씨 감무공계, 하동정씨 산원공파, 임천백씨이고, 새롭게 대두된 가문은 정읍이씨와 낙안김씨 대제학공파, 경주김씨 충선공파, 보성전씨 세운계를 들 수 있다. 전주이씨 완창대군파를 비롯한 주요 의관가계 10위 내의 가계가 거의 순위 변화 없이 『생도안』의 주요 가계로 연결되는 추이는 일부 의관가문의 독점화를 시사한다. 주요 의관가계의 형성이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에 걸쳐 이루어지고<sup>28)</sup> 19세기 후반까지 그들 가문이 지속된다. 1881년 7월에 입속한 제주고씨 전서공파 고한상(高漢相)의 경우, 부친 고영석(高永錫)이 문과를 급제해 司諫院 正言을 지냈음에도, 중인신분인 의학생도가 되는 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된다. 7739명의 잡과와 주학 입격자를 대상으로 한 김두헌의 논문은, 가문내 세전율(世傳率)이 16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17세기 전반에 급등하고 17세기 후반에 높은 수준이 올라와 이후 19세기 후반까지 유지됨을 보여준다.<sup>29)</sup> 즉 일부 가계의 기술직 관직 독점 현상은 의관에만 국한되어 나타나진 않았다.

의과등과자 중 전의감 생도 출신의 높은 비율은 일부 의관 가계가 등과자의 주요한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 데 영향을 주고, 그 등과자들은 다시 전의감에서 녹관이 됨으로서

23) 『통문관지 권2·입속』, 『서운관지 권1·천거』참조  
 24) 김두헌, op. cit p.160~161. 본가의 8세 조상 내에 관상감, 혜민서, 통례원, 의학, 역학, 주학과 관련된 관청 등에 3대 이상 입사자가 있어야 비로소 완전을 의론할 것. 또는 외가나 처가의 사조 중에 기술직 종사자가 2명 이상일 것. 가문과 재주가 합당한 응시자를 운학 완전에 합격시킬 것. 피천자를 보증하는 보거인이 관상감의 실관일 것. 이상이 완전절목의 항목으로 들어있다.  
 25) 본관 분파별 인구의 비례를 감안하지 않은 본 논문 조사가 가지는 한계는 분명 있다. 하지만 독점화의 경향성을 연구함에는 유효하다. 예를 들어 전주이씨는 현재 86개의 분파가 존재하며 효령대군파, 광평대군파, 덕천군파, 밀성군파, 양녕대군파의 순으로 분파별 인구수가 많다. 그런데 전주이씨 중에 조선시대 의관가계는 완창대군파(完昌大君派, 138명), 장천군파(長川君派, 10명), 수춘군파(壽春君派, 5명)의 순이다. 반면 효령대군파 1명(內醫), 광평대군파 1명(儒醫), 덕천군파 2명(儒醫), 밀성군파와 양녕대군파는 의관이 없다. 분파 총수와 의관 수의 비가 비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완창대군파 중에서도 27세 중지(仲枝)계와 29세 명복(命福)계에서만 의관으로 출사한다. 일부 후손의 계열에서만 의관 출사자가 나오기에 실제 씨족분파 전체의 성원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26) 논자는 『조선의인지』에서 3988명을 대상으로 193개 가계를 조사한 바 있다. 추가조사(4330명 대상)를 통하여 경주최씨 정(貞)계는 화숙공파(참관공파)에, 밀양박씨 정기(正麒)계는 기매(企梅)계에, 청주최씨 덕은(德恩)계는 귀동(貴同)계에 통합하고, 인동장씨 武科 태희계(泰淮)는 양주파(楊州派)로 수정, 한양조씨 침추공파(漢陽趙氏 僉樞公派), 풍덕장씨 순신계(豐德張氏 順信), 아산장씨 가선 유계(牙山莊氏 嘉善 愉), 안산이씨 참의공파(安山李氏 參議公派), 경주정씨 양경공파(慶州鄭氏 良敬公派), 경주김씨 주계(慶州金氏 澍), 수원최씨 숙생계(水原崔氏 淑生), 용궁김씨(龍宮金氏), 음죽이씨 희계(陰竹李氏 熙), 개성김씨 희운계(開城金氏 希胤), 평산백씨 상유계(平山白氏 祥瑜), 파평조씨 만동계(坡平趙氏 萬叟)를 추가, 총 202개 가계로 조사되었다.  
 27) 논자의 조사에 따르면 개성김씨 중에 조선조 증인가문을 형성하는 가계는 넷이다. 그 중 덕부계는 역관으로 출사하는 가계이다. 중경송남파(中京崧南派), 계원계(梯元), 희운계(希胤)는 주요의관가계에 속하며, 조선시대에 각각 8명, 12명, 4명의 의관(의학생도 포함)을 배출했다.  
 28) 『조선의인지』의 가계 첫 인물 참조  
 29) 김두헌,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p.177-180.

자신의 가문 출신들을完천자로 받아들이는 폐쇄적인 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주요 가계의 조선 의관(4330인) 내 비율과 『생도안』 수록 인물(392인) 내 비율은 표 3과 같다. 이를 보면 주요가계 수위인 전주이씨 완창대군파는 조선 전체 의관의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위의 가계 비율 합이 19.53%에 이른다. 그런데 이 가문들의 『생도안』 내 비율은 합이 34.91%에 달한다. 이는 의학생도가 특정 가계에 의해 독점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 하겠다. 표의 모든 가계가 전체의관 내 비율보다 『생도안』 내 비율이 더 높게 나온다. 이는 다른 시기보다 19세기 후반에 독점이 강화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학생도 지위에 대한 가문들의 독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앞서 보았듯 생도의 의관 출사 비율은 26.53%로서 이를 감안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핀 가문의 독점화는 신분제 사회 내에서 신분상승의 한계에 직면한 중인계층의 자구책으로 사료된다.

표 3. 주요의관가계 순위

| 조선시대 주요의관가계 순위                 | 『전함생도안』 수록 주요의관가계 순위              |
|--------------------------------|-----------------------------------|
| 1. 138명<br>全州李氏 完昌大君派          | 1. 21명<br>全州李氏 完昌大君派              |
| 2. 120명<br>慶州崔氏 和淑公派<br>(參判公派) | 2. 20명<br>慶州崔氏 和淑公派<br>(參判公派)     |
| 3. 107명<br>川寧玄氏                | 川寧玄氏                              |
| 4. 85명<br>慶州鄭氏 文憲公派            | 慶州鄭氏 文憲公派                         |
| 5. 78명<br>密陽卞氏 仲派              | 密陽卞氏 仲派                           |
| 6. 67명<br>溫陽方氏 判書公派            | 溫陽鄭氏 高城君派<br>井邑李氏                 |
| 7. 58명<br>泰安李氏 副護軍 堅系          | 8. 10명<br>溫陽方氏 判書公派<br>樂安金氏 大提學公派 |
| 8. 56명<br>溫陽鄭氏 高城君派            | 10. 9명<br>泰安李氏 副護軍 堅系<br>稷山崔氏 壽長系 |
| 9. 50명<br>金海金氏 守良系             | 12. 8명<br>淸州韓氏 恭安公派<br>慶州金氏 忠宣公派  |
| 10. 45명<br>洪川皮氏                | 14. 7명<br>洪川皮氏                    |
| 12. 44명<br>平壤趙氏 兪樞公派           | 海州李氏 仁戾系<br>慶州金氏 鷄林君派             |
| 13. 43명<br>淸陽金氏 監務公系           | 朱溪崔氏 潤屋系                          |
| 14. 42명<br>海州李氏 仁戾系            | 18. 6명<br>金海金氏 守良系<br>寶城全氏 世允系    |
| 15. 40명<br>淸州韓氏 恭安公派           | 20. 5명                            |

|   |  |
|---|--|
| 原州邊氏 護軍公派<br>17. 36명<br>慶州金氏 鷄林君派<br>18. 35명<br>河東鄭氏 散員公派<br>19. 34명<br>朱溪崔氏 潤屋系<br>20. 32명<br>固城金氏 安山派<br>林川白氏<br>22. 31명<br>井邑李氏<br>23. 30명<br>昇平康氏<br>濟州高氏 典書公派<br>南陽洪氏 世昌系<br>安山李氏 贊英公派 | 平壤趙氏 兪樞公派<br>原州邊氏 護軍公派<br>固城金氏 安山派<br>晉州姜氏 守雲系<br>漢陽劉氏<br>江陰李氏 潤孫系<br>金海金氏 順孫系<br>27. 4명<br>南陽洪氏 世昌系<br>安山李氏 贊英公派<br>三陟金氏 杜之系<br>天安李氏 昌連系<br>陝川李氏 順光系<br>白川張氏 碩系<br>河陰田氏 |
|---|--|

표 4. 주요가계의 의관과 생도 내 비율

| 가계명         | 조선시대 의관 내 비율 | 생도안 수록 인물 내 비율 |
|-------------|--------------|----------------|
| 全州李氏 完昌大君派  | 3.18%        | 5.35%          |
| 慶州崔氏 和淑公派   | 2.76%        | 5.1%           |
| 川寧玄氏        | 2.46%        | 5.1%           |
| 慶州鄭氏 文憲公派   | 1.96%        | 3.06%          |
| 密陽卞氏 仲派     | 1.8%         | 3.06%          |
| 溫陽方氏 判書公派   | 1.54%        | 2.55%          |
| 泰安李氏 副護軍 堅系 | 1.33%        | 2.29%          |
| 溫陽鄭氏 高城君派   | 1.29%        | 2.8%           |
| 金海金氏 守良系    | 1.15%        | 1.53%          |
| 洪川皮氏        | 1.03%        | 1.78%          |
| 稷山崔氏 壽長系    | 1.03%        | 2.29%          |

### Ⅲ. 결론

본고에서 다룬 『전함생도안』은 기술직 관련 관청 생도 명부로서는 유일한 현전 자료로, 1869년부터 1884년에 걸쳐 392명의 전의감 의학 생도를 수록하고 있다. 이 문헌은 관찬 전의감자료의 공백을 일부 해소하여, 전의감 관련 향후 연구에 있어 의미가 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전의감 생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1. 전의감 의학생도의 충원 시기는 일정하지 않아, 연중 수시로 충원되었다.
2. 식년시 의과 실시 전 해에는 대규모의 충원이 이루어지고 의과 실시 해에는 소수의 충원만 이루어진다.
3. 다른 기술직 관청의 생도와 유사하게 전의감 생도 또한 입속연령은 15세 전후이다.
4. 생도의 26.53%가 의관으로 출사하였는데 역관과 서운관의 비율도 8.67%로서 일정비율을 차지한다.
5. 입속 후 의과 등과까지는 걸리는 기간은 일 년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식년시 의과 실시 전해에 많은 생도를 충원하기 때문이다.
6. 등과까지의 기간이 1년, 4년, 7년, 10년 주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식년시 의과 실시 주기가 3년인 까닭이다. 등과가 입속 10년 이내로 이루어진 점에 착안하여 1879년부터 1885년의 의과 등과자로 제한하여 생도 출신 비율을 조사하면 53.73%이다.
7. 기존의 연구들에서 기술직 관직에 대한 일부 가문의 독점화가 논의되어왔는데, 『생도안』 수록 인물들의 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의관 내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재확인했다. 조선시대에 3명 이상의 의관을 배출한 가계는 202개인데, 『생도안』 수록 인물 중 95.15%가 그 가계 인물이다. 조선시대 주요 의관가계 10위 내 가문의 『생도안』 내에서 비율은 34.91%에 달한다. 이는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상승의 한계에 직면한 중인계층의 자구책으로 보인다.

- 1-300.
5. 김학성. 『대전회통』. 서울 : 보경문화사. 2007.
6. 박훈평. 『조선의인지』.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2 : 1-577.
7. 성주덕. 『서운관지』.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 1-522.
8. 이중근. 『전주이씨 완창대군과 대동보』. 전주이씨 완창대군과 대동보소. 2000.
9. 온양방씨대동보 편찬위원회. 『온양방씨 대동보』. 2005.
10. 정읍이씨 종친회. 『정읍이씨족보』. 회상사. 2000.
11. 평양조씨 침추공파 종친회. 『평양조씨 문충공손 침추공파보』. 발행년불명. 개인소장.
12.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1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1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 참고문헌

1. 김두현. 「19세기 운학완전합격자와 그들의 가계」. 전북사학. 2008 ; 33 : 143-183.
2. 김현목. 「조선후기 역학생도의 피천과 역과 진출」. 인하사학. 1994 ; 2 : 85-105.
3. 김현목. 「기술직 중인신분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1-194.
4. 김지남. 『통문관지』.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